

오순절 후 열여덟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8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9월 2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0 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새 7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9 번 이사야(Isaiah) 55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9:19-23	고민영 집사
찬 양 Anthem	“내 아버지 집”	찬양대
설 교 Sermon	“복음에 참여하는 예배” (Worship for the Sake of Gospel)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Praise and Prayer	“예배합니다(완전하신 나의 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64 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새 33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James McTyre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에만 더 많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세상의 길을 걷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만 주저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을 좇으려 했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하오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10:27, 엡 4:23-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한글개역 **고전9:23**)

“I do all this for the sake of the gospel, that I may share in its blessings”

(NIV 1 Corinthians 9:2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26 (주일)	9/27 (월)	9/28 (화)	9/29 (수)	9/30 (목)	10/1 (금)	10/2 (토)
	삼하22	삼하23	삼하24	왕상1	왕상2	왕상3	왕상4,5
본문	갈2	갈3	갈4	갈5	갈6	엡1	엡2
	겔29	겔30	겔31	겔32	겔33	겔34	겔35
	시78:1-37	시78:38-72	시79	시80	시81,82	시83,84	시85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9/29 오후7:30)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후13:1-13)
토요 새벽기도회 (10/2 오전6:30)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시53:1-6)

지난 주일(9/19) 말씀 – 김대호 목사

“그물 인생” (갈 6:1-5)

물고기를 잡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낚시로 물고기를 잡으면, 혼자서 월척을 낚을 수는 있어도, 함께 여러 마리를 낚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낚시는 한번 줄이 끊어지면 끝이 나지만, 그물은 서로 엮여 있어서 버터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떤 사람은 낚시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되는 무기가 (바로) 방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뚫리면 다 무너지며, 내가 서 있어야만 옆에 사람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물 인생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Pandemic)을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더욱 확인하게 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낚시대가 아니라, 분명 그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월척을 낚는 곳이 아니라, 함께 엮여서 153마리를 낚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물로 서로 엮여 주심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여, 1)먼저는 우리는 자신을 살피며 각자의 짐을 지고(갈6:5), 또한 2)뺏어진 그물이 있다면, 그곳을 잘 기우며(갈6:1), 3)마지막으로, 서로 그리고 함께 잘 엮여 있음을 통해(갈6: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물 인생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